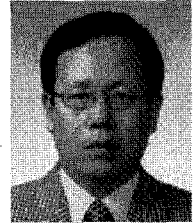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이 상 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 들어가는 말

농촌은 인간존재를 중심으로 생활, 놀이, 축제, 종교, 자연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생활문화가 숨쉬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관은 그곳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농촌경관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경관은 인간이 자연대지에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환경 즉, 장소 및 지역의 실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는 사람의 가치판단기준 및 감정을 이입하여 바라보는 풍경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이러한 의미를 지닌 농촌경관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기술진보에 의해 노동 절약적인 농작업이 많아지면서 농촌지역이 과소화되고,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해 많은 농촌공간이 상실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관이 지닌 의미는 전통적인 문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가치가 표출된 것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도시민에게 정서 함양의 장소 및 농촌관광의 주요자원 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경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¹⁾.

본 고에서는 이러한 농촌경관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경관가치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농촌경관의 가치평가법

농촌경관 평가는 크게 나누어 선호 평가와 가치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촌경관에 대한 선호 평가법에는 사람들을 경관현장에 직접 데려가지 않고 사진이나 컴퓨터 등 대용물을 통해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가법이 있으며 현장을 경험했거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현장경험에 의한 평가법이 있다. 또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평가를 지도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들을 분류하여 고찰하고 매핑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는 사인맵, 엘리먼트상기법, 평가맵, 필링맵 등으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

한편,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평가법은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접근방법이 있으며 계량적 방법으로는 CVM과 같이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에게 직접 평가액을 질문하는 직

1) OECD(2001)는 농촌경관의 개념에 대해 "농업, 자연자원,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물로서 쾌적함을 비롯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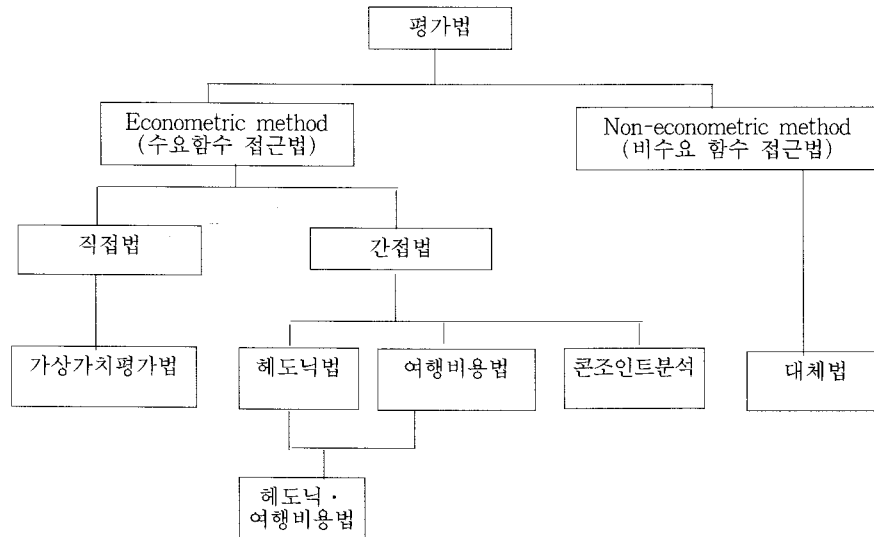


그림 1 농촌경관의 가치 평가법

접법과 헤도닉, 여행비용법과 같이 간접적으로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다원적 기능을 평가하는 간접법이 있다. CVM은 환경보전기능, 경관제공기능, 교육기능, 전통문화보전계승기능 등에 대해 질문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헤도닉법은 지역농업자원 즉 주로 거주 환경보전기능, 경관기능, 교육기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여행비용법은 농촌전체의 보건, 휴양 기능 등을 평가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지역농업자원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헤도닉·여행비용법을 적용할 수 있다²⁾. 이하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e Method)을 적용하여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이 경관평가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한다.

3. 농촌경관의 가치평가 사례

가. 농촌경관가치의 측정조건

존재가치를 포함한 농촌경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현재 농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으며 농촌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농촌경관에 대한 편

향된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농촌경관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장래에는 양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층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사대상자가 농촌경관을 이미지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형적인 농촌경관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자동 앙케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한 후 경관에 대한 가치평가 및 경관기금조성에 대한 찬반여부와 지불의지액을 묻는 것이다.

셋째는 농촌경관이라는 환경재를 구입할 수 있는 가상시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농촌풍경을 구입한다”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가 제시한 기부제시액을 지불하여 준다면 농촌풍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농촌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기금에 얼마를 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농촌풍경을 직접 구입한다는 의미보다는 농촌경관유지를 위한 금전적 부담에 대한 함의를 묻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의식이 포함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기금의 부족분”에 대한 지불의지를 묻는 형태를 취하였다.

2)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상영(2002)를 참조

나. 농촌이미지 형성과 경관가치평가

농촌경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조사대상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 대한 이미지일 것이다. 그림 2는 인간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연환경은 성장기에 산, 논, 밭 등과의 물리적인 접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사회환경은 자신과 부모님의 친가가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농촌공간과의 접촉기회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농촌을 연상할 때 자연, 생활, 역사적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물었다. 절대평가는 각각 3개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묻는 것이며 상대평가는 다른 요소와 비교하여 묻는 것이다.

농촌경험은 자연환경, 사회환경과 같은 조사대상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하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 청소년기의 농촌공간과의 접촉빈도이다. 농촌과는 연고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농촌이미지가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 농촌경관 조사 시스템의 설계

농촌경관조사는 그림 2의 농촌이미지 형성모델에 입각하여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질문지조사 → CVM조사 → AHP조사 → CVM조사 → 질문지조사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CVM과 AHP조사 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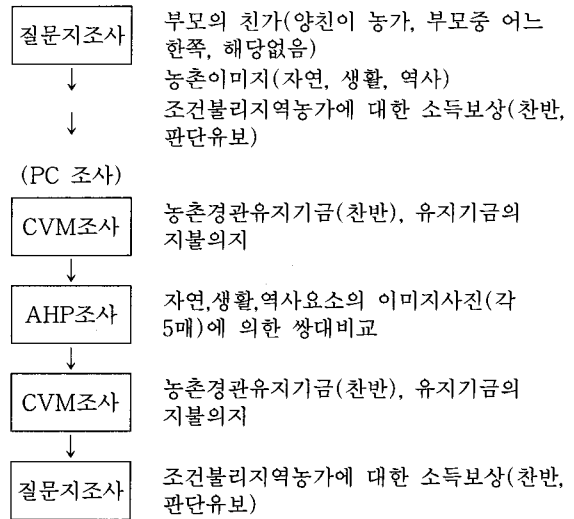


그림 3 농촌경관조사의 흐름도

현재 농촌경관의 가치평가법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상가치평가법(CVM)과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PC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HP분석은 CVM금액을 표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의 가치평가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조사대상자가 PC앞에 앉아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문자와 헤드폰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질문에 응답하면 되는데 PC조사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농촌경관의 CVM조사 및 부가질문이며 후반은 AHP조사이다. CVM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게 된 것은 AHP조사가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CVM 조사에서는 대상자는 몇 개의 영상을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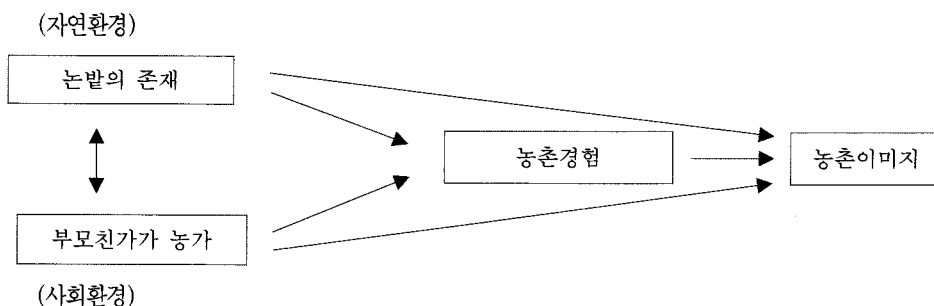


그림 2 농촌이미지형성 모델

한국 또는 일본의 농촌경관에 대한 설명을 헤드폰으로부터 듣는다. 최초 질문은 화상으로 나타나는 풍경을 대상으로 경관유지를 위한 기금제도를 창설한다는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이 기금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불의지를 묻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경관유지활동을 위한 기금으로는 부족하여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매월 ※※원(엔)을 기부하여 주시면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금액을 지불해주시겠습니까?”

한편, AHP 조사는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농촌경관에 대한 개인 이미지의 상위카테고리는 자연적 요소, 생활적 요소, 역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다. AHP요소간의 중요도는 정수를 이용한 비율척도를 쌍대 비교하여 얻는 것으로 PC조사에서는 그 특성을 살려 시각적인 척도에 의해 얻고자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한 3개의 상위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사진을 각 요소별로 5개씩의 사진영상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제공한 후 각 사진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것이다.

표 1 AHP조사를 위한 구성범주 및 요소

상위카테고리		하위 구성요소(사진)
자연적 요소	한국	①모내기직후 다락논, ②봄의 논두렁, ③꽃과 잠자리, ④논부락 원경, ⑤가을추수기
	일본	①모내기직후 다락논, ②봄의 논두렁, ③꽃과 잠자리, ④푸른 전원과 집성촌, ⑤가을추수기
생활적 요소	한국	①경운기작업, ②어린이들의 놀이모습, ③할아버지 가내수공업, ④작업중의 웃는 모습, ⑤소 경운작업
	일본	①경운기작업, ②농작업과 어린이, ③할머니 가내수공업, ④작업중의 웃는 모습, ⑤벼말리기 작업
역사적 요소	한국	①절, ②벚꽃초가집, ③고풍스런 부락채, ④의식, ⑤축제
	일본	①神社, ②역새이영집, ③비석, ④神社내 의식, ⑤축제

사진은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 카테고리의 속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였다.

하위구성요소(사진)에 대한 쌍대 비교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 10개 조합의 사진영상을 상호 비교하는 것으로 이들 조합은 무작위로 출현하도록 하였다. 상위카테고리의 출현순서는 자연적 요소, 생활적 요소, 역사적 요소의 순서로 일정하다.

본 PC조사는 CVM조사 종료 후에 AHP조사가 바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AHP조사는 농촌경관 구성 요소간의 중요도를 묻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농촌이미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CVM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AHP조사 후에 재차 CVM조사를 실시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라. 분석결과 고찰

1) 농촌이미지와 경관가치판단 및 의식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농촌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연이미지에 관해 살펴보면 자연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 92.6%, 일본 94.2%로 높지만 일본 쪽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 93.5%, 일본이 88.4%이지만 한국 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생활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이미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 56.3%, 일본 54.8%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 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농촌이미지에 관해서는 한국이 생활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연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2).

다음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의식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가치는 크게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나뉘어진다. 이용가치는 농업의 본래 목적에서 발생하는 직접이용가치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이용

가치, 장래의 이용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선택가치, 장래세대 이용이 기대되는 유산가치로 구분된다. 비이용가치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이용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로 나누어 이들 가치에 대한 양국간의 의식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먼저 특징적인 것은 이용가치에 관한 것으로 양국간에 농촌에 살고싶다고 대답한 비율이 한국이 19.4%임에 반해 일본은 4.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간혹 들려보고 싶다는 대답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1.5배 많다. 그러나 여유희롭게 즐기고 싶다는 대답은 한국은 21.1%임에 반해 일본은 43.9%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3).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능동적으로 농촌경관의 이용가치

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동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양국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산가치는 한일 양국이 90% 이상이 남기고 싶은 자산으로 응답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전국의 농촌유지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농촌을 유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경에 있으며 능동적인 이용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촌경관의 평가구조

농촌이미지형성모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자연, 생활, 역사적 요소가 있으며 이들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AHP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자연적 요소의 가중치가 56%로 높고 이어서 생활, 역사적 요소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자연이미지의 가중치가 49%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높지만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적 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이어서 이러한 상위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 즉 사진영상으로 본 농촌이미지의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한국에서는 자연적 요소를 구성하는 논부락의 원경, 생활적 요소에서 농작업 중의 웃는 모습, 역사적 요소는 고풍스러운 공동부락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연적 요소 가운데는 푸른 전원과 집성촌풍경, 생활이미지의 경운기작업, 역사적 이미지의 역사 이영집의 가중치가 높다. 이러한 가중치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생활이미지에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친가가 농가인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경험과 중복되는 농촌이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은 전통풍습 및 양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표 2 농촌이미지(중요한 이미지)

(단위: 명, %)

농촌이미지	구 분	한 국	일 본
자연 이미지	매우 중요하다	150(61.2)	411(66.1)
	중요하다고는 생각	77(31.4)	175(28.1)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16(6.5)	32(5.1)
	중요하지 않다	2(0.8)	4(0.6)
생활이미지	매우 중요하다	159(64.9)	347(55.9)
	중요하다고는 생각	70(28.6)	202(32.5)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15(6.1)	64(10.3)
	중요하지 않다	1(0.4)	8(1.3)
역사이미지	매우 중요하다	53(21.6)	168(27.0)
	중요하다고는 생각	85(34.7)	235(37.8)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99(40.4)	194(31.2)
	중요하지 않다	8(3.3)	25(4.0)

표 3 농촌경관가치에 대한 의식차이

(단위: 명, %)

가치종류		한 국	일 본
이용가치	간혹 들리고 싶다	106(58.9)	273(43.3)
	여유희롭게 즐기고 싶다	38(21.1)	277(43.9)
	살고싶다	35(19.4)	28(4.4)
	가고 싶지 않다	1(0.6)	53(8.4)
유산가치	남기고 싶다	177(98.3)	596(94.5)
	남기고 싶지 않다	3(1.7)	35(5.5)
존재가치	전국의 농촌 유지	41(22.8)	68(12.7)
	특정지역의 농촌 유지	138(76.7)	339(74.3)
	남길 필요는 없다	1(0.6)	49(13.0)

표 4 상위 구성범주의 가중치

구성범주	한 국	일 본
자연적 요소	0.4937	0.5563
생활적 요소	0.3286	0.2816
역사적 요소	0.1776	0.1621

표 5 하위 구성요소의 가중치(사진영상)

한국 가중치	사 진 내 용		일본 가중치
	한 국	일 본	
0.2170	① 모내기직후 다락논	① 모내기직후 다락논	0.2660
0.1145	② 봄의 논두렁	② 봄의 논두렁	0.1106
0.1019	③ 꽃과 잠자리	③ 꽃과 잠자리	0.0836
0.3013	④ 논부락 원경	④ 푸른 전원과 집성촌	0.2763
0.2653	⑤ 가을추수기	⑤ 가을추수기	0.2635
0.2164	① 경운기작업	① 경운기작업	0.2679
0.1923	② 어린이들의 놀이모습	② 농작업과 어린이	0.2231
0.1174	③ 할아버지 가내수공업	③ 할머니 가내수공업	0.1240
0.2612	④ 농작업중의 웃는 모습	④ 농작업중의 웃는 모습	0.1408
0.1867	⑤ 소 경운작업	⑤ 벼말리기 작업	0.2442
0.1866	① 절	① 神社	0.1619
0.2241	② 벧짚 초가집	② 억새 이영집	0.3052
0.2533	③ 고풍스런 공동부락	③ 비석	0.2797
0.1082	④ 의식	④ 神社내 의식	0.1172
0.2278	⑤ 축제	⑤ 축제	0.1360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다음 아닌 경제성장에 따라 농가출신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농촌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농촌경관유지 기금조성을 위한 지불의지역 추정

농촌경관유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지를 표명하는 비율은 AHP전후에서 한국이 45%에서 54%로 증가하여 일본의 34%에서 40%로의 증가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에서 찬성으로, 찬성에서 반대로 의식변화를 일으킨 비율은 한국이 10.6%, 일본은 7.3%로 농촌경관기금유지에서 본 찬반 변화율보다는 약간 높지만 사진정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6, 7).

한편 지불의지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지불제시액이다. 지불 의지액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형을 추정하여 계측결과를 표시한 것이 표 8이다. 결정계수는 낮지만 변수들의 부호는 예상결과와 일치하며 모든 변수가 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ext{logit}(T_{ij}) = \alpha + \beta F^{0.2}$$

단 T_{ij} 는 질문형식 T_i 의 j 번째의 지불의지확률, F 는 지불제

표 6 AHP조사 전후의 지불의지변화(한국)

(단위: 명, %)

한 국		AHP 조사 후		합 계
		없 다	있 다	
AHP 조사 전	없다	81(81.8%) 98.8%	18(18.2%) 18.4%	99(100.0%) 55.0%
	있다	1(1.2%) 1.2%	80(98.8%) 81.6%	81(100.0%) 45.0%
합 계		82(45.6%) 100.0%	98(54.4%) 100.0%	180(100.0%) 100.0%

의지 변화율 10.6%

표 7 AHP조사 전후의 지불의지 변화(일본)

(단위: 명, %)

일 본		AHP 조사 후		합 계
		없 다	있 다	
AHP 조사 전	없다	186(90.3%) 98.4%	20(9.7%) 16.0%	206(100.0%) 65.6%
	있다	3(2.8%) 1.6%	105(97.2%) 84.0%	108(100.0%) 34.4%
합 계		189(60.2%) 100.0%	125(39.8%) 100.0%	314(100.0%) 100.0%

의지 변화율 7.3%

시액

이러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AHP전후의 지불 의지율 및 지불 의지액을 나타낸 것이 그림 4, 그림 5, 표 9이다.

표 8 AHP조사 전후의 로짓 모형의 계측결과

파라메타	AHP조사전		AHP조사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α	3.0500 (3.7935)	3.8010 (6.3551)	3.6738 (4.3059)	3.6107 (6.3390)
β	-0.5624 (-4.1171)	-1.1629 (-7.3601)	-0.5967 (-4.2169)	-1.0342 (-7.0932)
Model χ^2	18.608	72.029	20.099	63.849
Cox & Snell R^2	0.231	0.283	0.241	0.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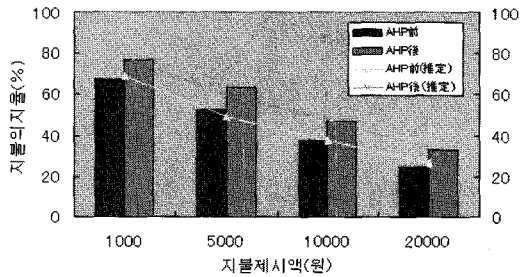


그림 4 AHP조사 전후의 지불의지율과 추정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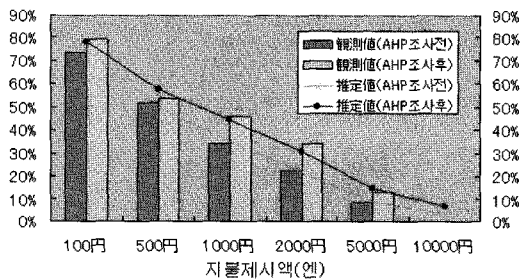


그림 5 AHP조사 전후의 지불의지율과 추정치 (일본)

표 9 AHP전후의 지불 의지액 변화

구분	CVM에 의한 평가액	중앙값	평균값
한국	AHP조사전 WTP	4,691.1원	5,057.9원
	AHP조사후 WTP	8,847.0원	9,153.0원
일본	AHP조사전 WTP	491.5엔	503.2엔
	AHP조사후 WTP	762.3엔	783.4엔

환율을 감안하면 일본과 한국의 WTP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AHP실시 후의 지불의지율의 증가는 한국 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능동적으로 이용가치를 인식하는 한국에서 농촌에 대한 가치평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FTA 및 DDA 등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촌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농촌이 농업에 의해서 그 모습이 형성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식량생산 역할보다는 농업이외의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환경 보전 및 경관제공, 휴식처와 같은 다양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변지역 또는 도시개발완료 후의 잔여지역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교류 장소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지닌 환경자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평가는 경관보전 및 도농상생을 위한 정책개발의 타당성 및 정책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농촌경관의 가치 평가에 입각한 지역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상영, 신용광, 김영. 2003. "농촌 공익기능의 보전기금에 대한 지불의사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30(3), pp.524-535.
- 이상영, 신용광. 2003. "주민참가에 의한 계단식 논 다원적 기능개발", 농업경영·정책연구30(4), pp.688-700.
- 이상영, 신용광, 김영. 2004.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木谷忍, 長谷部正, 野村希晶. 1999. 「農村風景の存在價值と評價構造の測定に関する研究」, 『農業經濟研究』 pp.364~366.
- 木谷忍, 長谷部正, 野村希晶. 2000. 「農村イメージの形成が農村維持に對する意識と態度に與える影響」, 東北大學大學院 『農業經濟研究報告』 第32號, pp.13-22, 2000.
- 野村希晶, 木谷忍, 長谷部正. 2001. 「PCナビゲート型調査システムによる假想市場評價法の試み」, 『日本建築學會技術報告集』 第12號, pp.219-222.
- 吉田謙太郎. 1996. 「コンテインジエント評價法による農村景觀の經濟的評價」, 『農業總合研究』 第50卷第2號, pp.1-45.